

12. 한양가(한산 거사)

우리나라 소산들도 부끄럽지 않건마는
타국 물화(物貨) 어울리니 백각전(百各廩)* 장할시고
칠패의 생선전에 각색 생선 다 있구나
민어 석어 석수어며 도미 준치 고등어며
낙지 소라 오적어며 조개 새우 전어로다

<중략>

도자전(刀子廩) 마로저재 금은보패 놓였구나
용잠(龍簪) 봉잠(鳳簪) 서복잠(瑞福簪)과 간화잠(間花簪) 창포잠(菖蒲簪)과
앞뒤 비녀 민죽절*과 개고리 얹힌 쪽비녀며
은가락지 옥가락지 보기 좋은 밀화지환(蜜花指環)*
금패 호박 가락지와 값 많은 순금지환
노리개 불작시면 대삼작과 소삼작과
옥나비 금벌이며 산호가지 밀화불수
옥장도 대모장도 빛 좋은 삼색실로
끈 술 푼 술 갖은 매듭 변화하기 측량없다

광통교 아래 가게 각색 그림 걸렸구나
보기 좋은 병풍차(屏風次)*의 백자도 요지연과
곽분양* 행락도며 강남금릉 경직도며
한가한 소상팔경(瀟湘八景)* 산수도 기이하다
다락벽 계견사호 장지문 어약용문
해학반도 십장생과 벽장문차 매죽난국
횡축(橫軸)을 불작시면 구운몽 성진이가
팔선녀 희롱하여 투화성주(投花成珠) 하는 모양
주나라 강태공이 궁팔십 노옹으로
사립을 숙여 쓰고 끈은 낚시 물에 넣고

우리나라 상품들도 부끄럽지 않다만
다른 나라의 상품들이 (시장에) 어울리니 시장의 모습이 훌륭하구나
칠패에 있는 생선가게에 온갖 생선 다 있구나
민어 석어 석수어 도미 준치 고등어
낙지 소라 오징어 조개 새우 전어로구나

(중략)

칼가게 마루시장에 금은보배 놓였구나
용모양 비녀 봉황모양 비녀 서복비녀 꽃비녀 창포비녀
앞 뒤 비녀 무늬 없는 비녀 개고리를 장식한 쪽비녀며
은반지 옥반지 보기 좋은 호박 반지
금패를 박은 호박 반지와 값 비싼 순금반지
노리개를 보면 큰 대삼작과 작은 소삼작
옥나비와 금벌 호박가지에 부처손을 새긴 호박
옥으로 만든 작은 칼 털이 붙은 장도를 빛 좋은 삼색실로
꼬은 매듭 풀어놓은 매듭 변화가 측량이 없다

광통교 아래 가게에는 온갖 그림이 걸렸구나
보기 좋은 병풍을 장식할 그림들로 백자도 요지연 그림과
곽분양 행락도 강남금릉 경직도
한가한 소상팔경을 그린 산수도(山水圖)가 기이하구나
다락벽 닭개사자호랑이 그림 장자문 어약용문 그림
해학반도 그림 십장생 그림 벽장문차 매죽난국 그림
가로로 놓인 것들을 보면 구운몽 성진이가
팔선녀 희롱하여 꽃을 던져 구슬을 만드는 그림
주나라 강태공이 팔십이 된 노인으로
삿갓을 숙여 쓰고 끈은 낚시대 물에 넣고

때 오기만 기다릴 제 주문왕 착한 임금
 어진 사람 얻으려고 몸소 와서 보는 거동
 한나라 상산사호(商山四皓)* 갈건야복 도인 모양
 네 늙은이 바둑 둘 제
 제세안민(濟世安民) 경영이라

- . 제재 : 한양의 풍물 등
- . 주제 : 한양의 풍물 등에 대한 소개
- . 특징 :
 - ① 다양한 조선의 물화에 대해 감탄하고 있음
 - ② 열거법을 사용하여 한양의 풍물을 사실적으로 소개하고 있음
 - ③ 조선 후기 한양의 모습(지리, 관청, 시장 등)을 잘 알려주는 민속학적 의의를 지님

16. 설중방우인불우(이규보)

눈빛이 종이보다 더욱 희길래 雪色白於紙
 채찍 들어 내 이름을 그 위에 썼지. 擧鞭書姓字
 바람아 불어서 땅 쓸지 마라. 莫教風掃地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려 주렴. 好待主人至

- . 주제 : 친구를 만나지 못한 상황에 대한 아쉬움과 안타까움
- . 특징 :
 - ① 의인화된 표현과 돈호법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전달하고 있음
 - ② 명령형 어조를 통해 화자의 안타까움을 표현함
 - ③ 동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화자의 모습을 표현함
 - ④ 눈빛과 종이의 비교를 활용함

때 오기만 기다릴 제 주(周)나라 문왕(文王) 착한 임금이
 어진 사람을 얻으려고 몸소 와서는 보는 거동(을 그린 그림)
 한나라 상산사호 그림에서 갈건야복 도인(道人)의 모습
 네 늙은이 바둑 둘 때를
 (그린 그림은)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편안케 하는 계획을 나타내는구나.

- *백각전: 조선 시대 정부에서 관리하던 상점들.
- *민죽절: 아무 모양도 새기지 않은 대나무 비녀.
- *밀화지환: 보석의 일종인 호박으로 만든 가락지.
- *병풍차: 병풍을 꾸밀 그림이나 글씨.
- *곽분양: 당나라의 명장으로 높은 공을 세우고 많은 복을 누린 사람으로 유명함.
- *소상팔경: 중국 소수와 상수 일대의 여덟 군데 빼어난 경치.
- *상산사호: 중국 진나라 말기 상산에 숨어 살던 네 명의 은사(隱士).

기: 하얗게 쌓인 눈을 보고 종이를 떠올림.
 승: 채찍을 들어 자신의 이름을 눈 위에 씌.
 전: 바람에게 불지 말 것(이름을 지우지 말 것)을 부탁함.
 결: 주인(친구)이 자신이 왔다 갔음을 알기를 바램.

13. 수심가(작자 미상)

근래안부(近來安否)가 문여하(問如何)요 월도사창(月到紗窓)에 첩한다(妾恨多)*인데 생각을 하니 임의 화용(花容)이 그리워 나 어이 할까요

약사몽혼(若使夢魂)으로 행유적(行有跡)이면* 문전석로(門前石路)가 반성사(半成砂)*로구나 생각을 하니 임의 화용(花容)이 그리워 나 어이 할까요

1~2연: 이별한 입에 대한 그리움

때 오기만 기다릴 제 주(周)나라 문왕(文王) 착한 임금
강산불변재봉춘(江山不變再逢春)*이요 임은 일거(一去)에 무소식이로구나
생각을 하니 세월 가는 것 서러워 나 어이 할까요

인생일장(人生一場)은 춘몽(春夢)이 되고 세상공명(世上功名) 꿈박이로구나
차마 진정코 세월이 가는 것 서러워 나 어이 할까요

추야공산(秋夜空山) 다 저문 날에 모란 황국이 다 피었구나
생각을 하니 세월 가는 것 덩달아 나 어이 할까요

일락서산(日落西山) 해 떨어지고 월출동령(月出東嶺)에 달 솟아 온다
생각을 하니 세월 가는 것 아연(啞然)하여 나 어이 할까요

3-6연: 흐르는 세월에 대한 체념과 무상감

친구가 본판은 남이런만은 어이 그다지도 유정(有情)탄 말시오
보면 반갑고 아니 보며는 그리워 아 어찌잔 말시오

7연: 친구에 대한 그리움

계변양류(溪邊楊柳)는 사사록(絲絲綠)이요 무릉도화(武陵桃花)는 점점홍(點點紅)이로구나
생각 사사로 이미롭지 못하여 나 어이 할까요

난사(亂事)로 난사로다 난사 중에도 겁난사로구나
어느 때나 좋은 시절을 만나여 잘 살아 볼까요

청포(靑袍)로 일상만리선(一上萬里船)*하니 동정여천(洞庭如天)이 파시추(波始秋)*로구나
생각 사사로 마음 뜻대로 못 하여 어이 사드란 말시오

8~10연: 마음대로 되지 않는 신세에 대한 한탄

산천의 초목은 젊어만 가고 인간의 청춘은 늙어만 가누나
생각을 하니 세월 가는 것 서러워 나 어이 할까요

11연: 흐르는 세월에 대한 체념과 서러움

아 자귀야 우지를 마라 울 량이면 너 혼자 울 거지
여관한등(旅館寒燈) 잠들은 날까지 왜 깨운단 말시오

12연: 밤에 느끼는 슬픔과 원망

무심(無心)한 기차야 소리 말고 가거라 아니 나던 임 생각 저절로 나누나
청춘홍안(靑春紅顏)을 애연(哀然)타 말고 마음대로 노진다

13연: 입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을 잊으려 놓고 싶은 마음

*월도사창에 첩한다: 첩은 달빛 흐르는 창가에 기대어 한이 많음.

*약사몽혼으로 행유적이면: 만약 나의 꿈속의 혼이 자취 있다면.

*문전석로가 반성사: 임의 집 앞 돌길이 닳아서 반쯤은 모래가 되었을 것임.

*강산불변재봉춘: 강산은 변하지 않는데 봄은 다시 옵니다.

*청포로 일상만리선: 청포를 입고 만 리를 가는 배에 오름.

*동정여천이 파시추: 동정호에 이르니 물빛이 하늘과 같아 물결이 가을을 알림.

14. 영산가(작자 미상)

영산홍록(映山紅綠)*에 봄바람 넘노나니 황봉백접(黃蜂白蝶)
 붉은 꽃 푸른 잎은 산양산기(山陽山氣)를 자랑하고
 가는 새 오는 나비 춘기춘흥(春氣春興)을 조롱한다
 죽장(竹杖)을 짚고 망혜(芒鞋)를 신어라
 천리강산 들어가니 만장폭포도 좋거니와
 여산(廬山)이 여기로다 비류직하삼천척(飛流直下三千尺)
 의시은하낙구천(疑是銀河落九天)*은 옛글에도 일러 있고
 타기황앵(打起黃鶯) 아이들은 막교지상(莫教枝上)에 한을 마라
 피꼬리 탓이 아니더냐 황금 같은 저 피꼬리
 황금 갑옷 떨쳐입고 세류영(細柳營)에 넘노는 듯
 벽력같이 우는 소리 깊이 든 잠 다 깨운다

1~11행: 봄날의 아름다운 경치에서 느끼는 흥취

산 절로 수 절로 하니 산수 간에 나도 나도 절로
 이 중에 절로 난 몸이 늙기도 절로 하리
 화류 장대(章臺) 고운 여자
 너희 얼굴 곱다 하고 자랑하지 말려무나
 뒷동산 피는 꽃은 명춘 삼월 피려니와
 나와 같은 초로인생(草露人生) 한번 꿈쩍 죽어지면
 다시 갱생 어려워라
 낙양성 십리허에 높고 낮은 저 무덤은
 영웅호걸이 몇몇이며 절대가인이 몇몇이나
 통일천하 진시황은 아방궁(阿房宮)을 사랑 삼고
 삼천궁녀를 시위하여 몇만 년을 살자 하고
 만리장성 굳게 쌓고 기천만 년 살자더니
 사구평대(沙丘坪臺) 저문 날에 여산청초(驪山靑草) 속절없다*

1~11행: 봄날의 아름다운 경치에서 느끼는 흥취

이러한 영웅들은 사후유명(死後留名) 되려니와
 나와 같은 초로인생 한번 꿈쩍 죽어지면
 칠성포*로 질끈 묶어 소방상* 뗏돌 위에
 두렷이 매고 갈 때 한 모퉁이 돌아가니
 굶은비는 세우 섞어 함박으로 퍼붓는데
 무주공산 터를 닦아 청송(靑松)으로 울을 삼고
 두견새로 벼를 삼아 주야장천 누웠으니
 산은 요요 물은 광광 이것이 낙이로다
 이러한 일 생각하면 아니 놀고 무엇 하리
 노류장화(路柳墻花)*를 꺾어서 들고 마음대로만 놀아 보세

25~34행: 마음껏 인생을 즐길 것을 권유함.

• 주제 : 인생무상과 삶의 유희에 대한 권유

• 특징 :

- ① 대상의 의인화를 통해 화자의 친밀감을 드러냄
- ② 색채어의 대비를 통해 화자가 바라보는 대상을 제시함
- ③ 주변 풍경의 모습을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생생하게 표현함
- ④ 고사를 활용하여 화자의 생각을 강조함
- ⑤ 물음의 방식을 활용하여 청자의 공감을 이끌어 냄

*영산홍록: 붉은 꽃과 푸른 잎이 무성하여 산을 붉고 푸르게 덮음.

*비류직하삼천척 / 의시은하낙구천: 삼천 척이나 되는 폭포가 나는 듯이 곧장 쏟아져 내리니 마치 저 높은 하늘에서 은하수가 떨어지는 듯하네. 이백(李白)의 「망여산폭포」의 한 구절.

*사구평대 ~ 속절없다: ‘사구평대’는 진시황이 죽은 곳, ‘여산’은 진시황이 묻힌 곳으로, 인생무상을 의미함.

*칠성포: 시신을 염습한 다음에 묶는 끈으로 사용하는 삼베.

*소방상: 좁은 곳에 사용하는 작은 상여.

*노류장화: 아무나 쉽게 꺾을 수 있는 ‘길가의 버들과 담 밑의 꽃’이라는 뜻으로, 기생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5. 소춘향가(작자 미상)

춘향의 거동 보아라
오른손으로 일광을 가리고
왼손 높이 들어 저 건너 죽림 보인다
대 심어 울하고 솔 심어 정자라
동편에 연당(蓮塘)이요 서편에 우물이라
노방(路傍)에 시매오후과(時買五侯瓜)*요 문전(門前)에 학종선생류(學種先生柳)*라
긴 버들 휘늘어진 늙은 장송
광풍에 흥을 겨워 우줄우줄 춤을 추니
저 건너 사립문 안에 삽살개 앉아
먼 산만 바라보며 꼬리 치는 저 집이오니
황혼에 정녕 돌아오소

1~11행: 몽룡에게 자신의 집을 알려 주는 춘향의 모습

떨치고 가는 형상 사람의 뼈다귀를 다 녹인다
너는 웬 계집이건대 나를 종종 녹이느냐
너는 웬 계집이건대 장부의 간장을 다 녹이나
녹음방초승화시(綠陰芳草勝華時)*에 해는 어이 더디 가고
오동추야(梧桐秋夜) 긴긴 달에 밤은 어이 수이 가노

12~16행: 춘향에 대한 몽룡의 연정

일월무정(日月無情) 덧없도다 옥빈홍안(玉鬢紅顏) 공노(空老)로다
우는 눈물 받아 내면 배도 타고 가련마는
지척동방 천 리인가 어이 그리 못 보시고

17~19행: 이별한 몽룡에 대한 춘향의 그리움과 슬픔

• 주제 : 만남과 이별에 대한 춘향과 몽룡의 희비(喜悲)

• 특징 :

- ① 판소리 춘향가와의 논리적 연관성은 다소 부족함
- ② 감정이입과 자연물을 의인화하여 표현함
- ③ 과장된 표현을 통해 인물의 처지를 부각함
- ④ 인물의 말을 직접 제시하여 정서를 드러냄
- ⑤ 대구적 표현과 대조되는 어휘를 사용함

* 노방에 시매오후과: 길가에서는 때에 맞게 오후들이 오이를 팔고 있음. 오후는 권세 있고 부귀한 사람들을 뜻하는 말.

* 문전에 학종선생류: 문 앞에는 오류 선생을 본받아 버드나무를 심음. 오류 선생은 도연명의 호이며, 자기 집 문 앞에 버드나무 다섯 그루를 심었다고 함.

* 녹음방초승화시: 우거진 나무 그늘과 향기로운 풀이 꽃보다 아름다운 때. 여름철 화사한 때를 말함.

18. 처용가-향가

동경 밝은 달에
밤들이 노니다가

1~2행: 한밤까지 놀다 집에 돌아옴.

들어 자리를 보니
다리가 넷이러라.

3~4행: 역신이 아내를 범한 것을 알게 됨.

둘은 내 것이었고
둘은 누구의 것인가.

5~6행: 역신의 침입을 확인하고 체념함.

분디 내 것이지만
빼앗긴 것을 어찌하리오.

7~8행: 처용의 관용

• 주제 : 아내를 범한 역신을 쫓아냄.

• 특징 :

- ① 벽사 진경(辟邪進慶)의 민속에서 형성된 무가(巫歌)이며, 고려와 조선 시대에 걸쳐 의식(儀式)에 사용되는 무용 또는 연희로 계승됨.
- ② 체념과 관용을 바탕으로 한 축사(逐邪)의 노래임.
- ③ 영탄을 통해 분노와 슬픔, 체념과 관용의 감정을 동시에 드러냄.

19. 처용가-고려가요(작자 미상)

처용아비를 누가 지어 세우는가/ 바늘도 실도 없이 바늘도 실도 없이/
처용아비를 누가 지어 세우는가/ 많고 많은 사람들이여/ 십이 제국이 모두
모여 세운/ 아, 처용아비를, 많고 많은 사람들이여

1~6행: 처용아비에 대한 예찬

버찌야, 오얏야, 녹리야/ 빨리 나와 내 신코를 매어라/ 안 매어 있으면 나올
것이다, 나쁜 말

7~9행: 집으로 돌아가려는 처용

동경 밝은 달과 밤늦도록 노니다가/ 들어와 자리를 보니 다리가 넷이로구나/
아, 둘은 내 것이거니와 둘은 누구의 것인가/ 이런 때 처용아비가 보시면/
열병신이야 횃거리*로다

10~14행: 열병신의 침범을 확인한 처용

천금을 주겠습니까 처용아비여/칠보를 주겠습니까 처용아비여*/천금 칠보도
그만두오/ 열병신을 날 잡아 주소서

15~18행: 열병신을 잡아 달라는 요청

산이나 들이나 천 리 외에/ 처용아비를 피하여 가고져 /아, 열병대신의
발원이지로다

19~21행: 처용을 피해 달아나고 싶은 열병대신

• 주제 : 가정을 침범한 역신을 구축함. 벽사진경

• 특징 :

- ① 무가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
- ② 영탄적 어조를 통해 감정을 표현함
- ③ 향가 '처용가'의 작품 이해에 단서가 됨
- ④ 화자가 역신이나 처용과의 대화를 드러내어 희곡적 특성을 보여줌

17. 자술(이옥봉)

근래의 안부는 어떠신지요. 近來安否問如何
 사창에 달 떠오면 하도 그리워, 月到紗窓妾恨多
 꿈속 냇 만약에 자취 있다면 若使夢魂行有跡
 문 앞 돌길 모래로 변하였으리. 門前石路已成沙

기: 근래 임의 안부를 물어봄.

승: 달 뜨는 밤,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토로함.

전: 꿈속에서도 임을 찾아다니는 간절한 마음을 밝힘.

결: 꿈속의 문 앞 돌길이 모래가 될 정도로 임을 그리워하고 있음을 밝힘.

• 주제 :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과 꿈에서도 잊지 못하는 마음

• 특징 :

- ① 임에게 말을 건네는 듯한 어조를 활용함
- ② 과장법을 활용하여 화자의 그리움을 표현함
- ③ 가정법을 활용하여 시상의 전환이 드러냄

20. 이이, 「매초명월」

매화는 본래 환히 맑기에, 梅花本瑩然(매화본영연)
 달에 비치니, 물빛인 듯하네. 映月疑成水(영월의성수)

→ 매화의 속성이 '빛남'임을 드러내고 있음.

→ 매화와 달빛의 조음을 표현함.

1~2구: 달빛을 받아 밝게 빛나는 매화의 모습

서리와 눈이 흰 자태를 더해 주어, 霜雪助素艷(상설조소염)
 맑고 차가움이 사람의 뺨속에 스며드네. 清寒徹人髓(청한철인수)

→ 눈과 매화의 조음

→ '맑고 찬 기운'은 '눈'과 '매화'의 공통 속성

3~4구: 매화에서 느끼는 맑고 찬 기운

이 꽃을 대하면 마음을 씻어 주니 對此洗靈臺(대차세령대)
 오늘 밤은 한 점의 앙금도 없네. 今宵無點滓(금소무점재)

→ '매화'를 자기 수양의 도구로 봄

→ 5행의 결과

5~6구: 매화를 바라보며 정화되는 내면